

한국판 가족 후원·자극 척도(K-SCQ)의 타당화

Validity of a Korean Family Support & Challenge Questionnaire

성균관대학교 아동학과
강사 이화선
교수 최인수

Department of Child Psychology & Educ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Lecturer : Hwasun Lee

Professor : Insoo Choe

◀ 목 차 ▶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결과분석

IV. 논의 및 결론
참고 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alidate the Korean Family Support & Challenge Questionnaire (K-SCQ), which is designed to assess family complexity in Children. There were 258 pre-test participants in this study and 498 senior students who were in elementary school. Results from the pre-test suggested us to use Likert scale over a dichotomous agree or disagree scale and positively items over negative ones. Results of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howed that the two factor structure (family support and challenge) of the SCQ fits well for Korean students. The K-SCQ has also good internal consistency. Further analysis was performed to explore the relationships between four family types based on K-SCQ and children's well-being and flow experience. It showed that the children in a high support/high challenge family had the highest emotional well-being, psychological well-being, and flow experience.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complex family characterized by high support and challenge has strong and positive impact on the children's quality of life.

주제어(Key Words) : 가족 후원·자극 척도(SCQ), 복합적 가정(complex family), 가족의 후원(family support), 가족의 자극(family challenge), 안녕감(well-being), 몰입(flow)

I. 서론

인간은 출생해 성장해가면서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여러 가지 잠재적 능력을 성장시키는데, 이러한 환경변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 가정이다. 많은 연구들은 가정환경의 특성과 가정이 제공하는 경험이 아이가 성장해서 어떤 유형의 사람이 되는가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보여준다. 그렇다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상호작용 중 어떠한 가정의 작용이나 환경이 아동의 최적 발달에 가장 기여하는 것일까?

1970년대 이래 복잡성(complexity)이라는 용어는 사회과학, 공학, 카오스 이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복잡성은 '복잡하다'(complicate)라는 말과 구분 짓는 것이 중요하다. 보통 무엇인가를 복잡하다고 할 때 그 말은 난해하다거나 혼란스럽다는 뜻으로, 분화(differentiation)는 되어있으나 통합(integration)은 잘 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복잡한 시스템은 분화와 통합 양쪽이 최적화되어 혼란스럽지 않다. 모든 복잡한 시스템(생물학적, 인지적, 가정, 사회적 측면)은 분화와 통합의 변증법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진화한다. 여기서 분화란 변화를 추구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며, 통합이란 지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Csikszentmihalyi, 1990, 1993, 1996; Gute, Gute, Nakamura, & Csikszentmihalyi, 2008; Rathunde & Csikszentmihalyi, 1991).

이러한 복잡성 모형이 가족맥락에 적용된 것을 복잡적 가정환경(complex family)이라고 한다. 즉 복잡적 가정환경은 분화와 통합이 모두 갖춰진 가정으로, 여기서 분화된 가정이란 가족 구성원 개개인이 고유한 정체성을 갖고 개인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도전을 장려하고 자극함으로 분화되는 것을 의미하며, 통합된 가정은 정서적 후원과 공동의 목표,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응집성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Rathunde, 1989, 1996; Rathunde & Csikszentmihalyi, 1991). 실제로 가족역학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아동의 최적발달을 돕는 최상의 가정환경이 여기서 말하는 복잡적인 가정이라는 것에 동의한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Baumrind(1987, 1989)는 반응(responsiveness)과 요구(demandingness)가 적절한 조화를 이룬 환경에서 자녀들은 자기 역량을 한껏 발휘한다고 하였고, Cooper, Grotevant와 Condon(1983)은 결합(connectedness)과 개별화(individuality)가 조화를 이룬 가정환경에서 자기정체성을 기르고 역할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키우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반응(Baumrind, 1989)과 결합(Cooper et al., 1983)은 통합과 같은 선상의 개념이며, 이들과 반대적 측면인 요구(Baumrind, 1989)와 개별화

(Cooper et al., 1983)는 분화와 그 의미를 같이 한다.

Rathunde(1988, 1989, 1996, 2001)는 Csikszentmihalyi의 복잡성의 개념을 이어, 통합은 '가족의 후원(support)', 분화는 '가족의 자극(challenge)'(또는 stimulation)으로 명명하여 복합적 가정을 연구하였다. 또한 그는 이러한 가정 유형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로 CFQ(Complex Family Questionnaire, 1988)를 개발하였다. CFQ는 우수한 청소년들(talented teenagers)을 대상으로 최적발달의 영향을 주는 가정환경을 경험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두 요인(후원과 자극)의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이후, CFQ의 신뢰도 향상과 좀 더 보편적인 청소년 가족 설문지를 만들기 위해 8문항을 추가 및 수정하여 가족 후원·자극 척도(Support and Challenge Questionnaire: SCQ, 이하 SCQ, 1996)를 개발하였다. 가족의 후원은 전술한 개념과 마찬가지로, 자녀에 대한 신뢰와 사랑, 헌신을 보여줌으로써, 자녀들이 자아를 보호하고 방어하는데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큼 가정의 편안함을 충분히 느끼게 하는 것이다. 가족의 자극은 아동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하게 함으로써 자율성과 독립심을 키우고, 도전적이고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지지하는 것이다. 또한 가족들이 자기한테 걸고 있다고 아이가 판단하는 기대와 그런 기대에 부응하고 싶은 마음도 크게 보면 모두 도전자극이다. 이런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거는 기대는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새로운 실력을 닦고 더 높은 개인적 성숙에 이를 수 있도록 격려하는 역할을 한다.

Rathunde(1996)는 가정에서 경험하는 자극과 후원의 다양한 수준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SCQ를 활용하여 가정환경을 4가지로 범주화하였다. 가정을 유형화하기 위해 후원과 자극의 지표를 중앙값을 기준으로 각각 이등분하여 <그림 1>과 같이 네 가지의 가정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각 유형에 대한 간략한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후원/고자극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의 자유를 존중하며 자녀에 대한 기대와 양육할 때 판단 기준이 명확하다. 가족 모두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 잘되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만 아니라 자아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인식도 공유하고 있다. 둘째, 고후원/저자극 가정은 가족끼리 신뢰하고 존중하며 가족 간의 정이 중시된다. 이러한 가정은 대개 따뜻하고 가족 간의 유대감이 깊지만 좀 더 도전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가정에 비해서는 목표의식이 낮은 편이다. 셋째, 저후원/고자극 가정은 부모와 자녀 모두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겠다는 의욕이 강하다. 자칫 자녀들은 형제들 간의 지나친 경쟁심과 부모의 높은 기대에 불만을 가지므로 갈등이 일어나기 쉽다. 마지막으로 저후원/저자극 가정은 자녀를 긍정적인 미래로 이끌어줄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유형으로, 가족들은 서로 같이 보내는 시간이 별로 없고 다른 가정유형에 비해 목표가 모호하고 자

가족의 자극	높음	저후원/고자극	고후원/고자극 (복합적 가정)
	낮음	저후원/저자극	고후원/저자극
		낮음	높음

가족의 후원

〈그림 1〉 가정환경의 4가지 유형

너들에게 현실과 동떨어진 기대를 거는 경우가 많다 (Csikszentmihalyi & Schneider, 2003).

Csikszentmihalyi(1990)는 복합적 가정 내의 경험이 플로우(flow)를 쉽게 경험하도록 이끄는 성격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플로우란 행위에 깊게 몰입하여 시간의 흐름이나 공간, 더 나아가서는 자신에 대한 생각까지도 잊어버리게 될 때를 일컫는 심리적 상태로 개인에게 최적 경험을 제공한다(Csikszentmihalyi, 1990; Csikszentmihalyi & Csikszentmihalyi, 1988). 이러한 최적경험은 활동에 참여한 사람에게 직접적이고 내적인 보상을 극대화하여 그 활동 자체가 재미있고 즐겁다고 느껴 그것을 계속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자기목적적 경험(autotelic experience)이라고도 한다. 플로우 상태를 경험하는 것은 지각된 능력(또는 기술, skill)과 도전(또는 과제의 난이도, challenge) 사이의 균형을 맞추느냐에 달려있다(Csikszentmihalyi, 1988). 개인은 도전이 자신의 능력 수준을 넘으면 불안감을 느끼고, 반대로 능력이 과제의 난이도보다 높으면 지루함을 느끼게 되기에, 플로우를 지속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수준과 과제의 난이도를 끊임없이 조정하여야 한다. 복합적 가정환경에서 성장하는 개인은 불안감을 느낄 때 자신의 실력을 높여 더 높은 수준의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반면, 지루함을 느끼면 높은 수준의 난이도에 도전하는 등 변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높다(Rathunde & Csikszentmihalyi, 2008). 왜냐하면 복합적 가정환경에서 제공하는 후원은 자녀들에게 심리적 에너지를 자아를 보호하거나 방어하는데 쓰지 않도록 하여 일상생활에서 플로우 경험을 할 수 있는 최적의 토대를 만들어 주고, 또한 분화를 격려하는 가정의 자극은 자녀들로 하여금 높은 도전과 기술이 요구되는 활동에 주의를 집중하게 하여 지속적으로 플로우를 경험하도록 돕기 때문이다(Gute et al., 2008).

플로우 경험이 우리 삶에 중요한 이유는 플로우 상태에서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고(Nakamura & Csikszentmihalyi, 2002), 플로우 경험이 지속됨으로써 복잡성이 증가되어 결과적으로 보다 높은 삶의 질을 형성하기 때

문이다. 이러한 값진 결과를 낳는 플로우 경험은 악기를 연주할 때나 운동을 할 때, 친구들과 대화를 할 때와 같이 다양한 여러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아동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습 상황에서의 플로우 경험, 즉 학습플로우경험(flow experience in learning)에 초점을 두었다. 아동의 경우, 특히 학습과 같은 생산적인 활동에서 플로우를 경험하는 것은 현재의 삶의 질과 더불어 미래의 삶과도 연관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학습상황에서의 플로우 경험은 학생들의 학업성취수준을 높여주는 것뿐만 아니라(박성익, 김연경, 2006; 석임복, 2008; Csikszentmihalyi & Larson, 1984; Csikszentmihalyi et al., 1993; Heine, 1997; Nakamura, 1988), 학습과정에 대한 만족감과 성취감, 나아가 자긍심과 미래에 대한 낙관성을 높여줌으로써 성인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Csikszentmihalyi & Schneider, 2003).

또한 미국 십대들의 삶의 질을 연구한 Csikszentmihalyi와 Schneider(2003)는 자신의 가족에게 후원과 자극 모두를 충분히 받는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행복감, 미래에 대한 낙관성과 자존감이 높고, 뚜렷한 목표의식을 지녔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결과변인들을 안녕감이라는 개념으로 확대하였다. 안녕감이란 아동이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해 스스로 내리는 평가(Keyes, Shmotkin, & Ryff, 2002; Lucas, Diener, & Suh, 1996)로, 크게 쾌락주의적(hedonic) 측면의 정서적 안녕감(emotional well-being)과 유테모니아적(eudaimonic) 측면의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으로 나뉜다(Compton, 2005). 정서적 안녕감은 아동이 자신의 삶에 대해 얼마나 행복하고 만족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전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Diener, Lucas, & Osipi, 2002)이다. 심리적 안녕감은 개인이 스스로에 대해 발달적으로 얼마나 성숙하고 개체로서 잘 기능하고 있다고 느끼는가를 평가하는 것으로 개인의 '의미 있는 삶'에 초점을 둔다(Ryff, 1989; Ryff & Keyes, 1995).

아동들이 자신의 잠재성을 최대한 발휘하고 삶에 대한 높은 안녕감을 지닌 행복한 인재로 성장하는 것은 궁극적인 교육의 목적이기에, 이를 이끄는 복합적 가정환경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가정환경을 측정하는 검사 역시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후원과 자극이 적절히 균형을 맞춰 결합된 복합적 가정환경이 자녀의 최적발달을 이끈다는 가정 하에 개발된 SCQ를 한국 아동들(초등학교 고학년)에게 적합하도록 타당화하고자 한다. 또한 개발된 K-SCQ(Korean Family Support & Challenge Questionnaire)로 분류되는 가정환경 유형과 앞서 설명한 아동의 학습플로우경험과 정서적·심리적 안녕감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복합적 가정환경이 아동의 높은 삶의 질과 최

적발달을 이끄는지를 경험적으로 검증을 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한국판 가족 후원·자극척도(K-SCQ)의 타당도와 신뢰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K-SCQ에 의해 구분된 4가지 가족유형에 따라 아동의 정서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 학습플로우경험의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한국 초등학교를 위한 가족 후원·자극 척도(K-SCQ)의 타당화를 위하여 서울시 소재의 공립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고학년(5·6학년)을 대상으로 예비조사 258명(남학생 120명, 여학생 138명)과 본조사 498명(남학생 243명, 여학생 255명)을 선정하였다. 예비조사는 한 학교를 임의 선정하여 실시하였고, 본조사는 서울시 25개 구(區) 중에서 어느 한 지역(학군)에 치우치지 않고 고르게 표집될 수 있도록 4개구를 선정한 다음, 이들 구에서 1개 교(校)씩 편의표집 하였다.

2. 측정도구

1) 한국판 가족 후원·자극 척도(K-SCQ)

가족 후원·자극 척도(SCQ)는 최적발달을 이끄는 가족의 상호작용 형태인 복합적 가정환경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검사(Rathunde, 1996)이다. SCQ는 가족의 후원 요인 16문항과 가족의 자극 요인 16문항으로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요인의 16문항 중 11문항은 긍정 문항이며 5문항은 부정 문항이다. 반응양식은 ‘그렇다(1점), ‘아니다(0점)’로 되어있는 이분화 동의·부동의 척도(dichotomous agree or disagree scale)이다. 가족의 후원은 가족 응집성, 편안함과 보살핌을 받는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으며(예: 우리 가족은 서로 언제든지 도울 수 있는 마음자세가 되어 있다, 우리 가족은 나에게 항상 관심을 가져준다), 가족의 도전은 자율성과 독립심, 성취를 강조하는 부모, 가정환경의 문항과 가족들이 걸고 있는 자신에 대한 기대, 그리고 그런 기대에 부응하고 싶은 욕구에 관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예: 우리 부모님은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나 스스로 내리도록 하신다, 우리 부모님은 내가 어떠한 일을 성취했을 때 이를 인정하시고 격려하신다, 나는 자랑스러운 아들딸이 되려고 노력한다). SCQ의 한국판(K-SCQ)의 타당화를 위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문화와 초등학교 고학년에 적합하도록 문항을 번안하였으며, 이분화 척도를 리커트 4점 척도로, 부정 문항

을 모두 긍정문항으로 바꾸어 사용하였다(이에 대한 설명은 연구절차에 제시함).

2) 아동의 안녕감 척도

아동의 정서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을 측정하기 위해, 이정미(2006)의 연구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Keyes(2005)의 SWBS(Subjective Well-Being Scale)의 정서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 문항들을 타당화한 척도를 이화선(2009)이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최근 한 달 간 느낀 정도를 ‘전혀 느끼지 못했다’의 1점에서 ‘항상 느꼈다’의 4점에 이르는 리커트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적 신뢰도는 정서적 안녕감(3문항) .87, 심리적 안녕감(6문항) .73이다.

3) 학습플로우경험 척도

학습플로우척도는 시카고 대학에서 개발된 경험표집양식(Experience Sampling Form, Csikszentmihalyi & Csikszentmihalyi, 1988)에서 추출하여 초등학교 고학년의 학습 상황에게 맞게 수정한 문항을 타당화한 것이다(이화선, 2009). 본 척도는 학습플로우조건(명확한 목표, 구체적인 피드백, 도전과 기술의 조화)에 대한 총 3문항, 학습플로우경험(집중, 통제감, 시간감각의 왜곡, 행동과 의식의 통합, 자기목적적 경험)에 대한 5문항, 총 8문항으로, 리커트 6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의 신뢰도는 두 요인 각각 .61, .70이다.

3. 연구절차 및 분석방법

SCQ를 타당화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먼저 SCQ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연구자가 32문항을 한국어로 번안한 후, 영어에 능통한 전공자 2인과 함께 역 번안한 문항들과 비교하여, 번안과정에서 각 문항이 요구하는 의미가 변질된 것은 없는지 확인 및 수정하였다. 또한 각 문항에 대한 아동들의 이해도를 확인하기 위해 5학년 한 학급을 대상으로 인터뷰 방식의 문항 검토과정을 거쳤다. 이와 같은 문항 번역 및 검토과정에서 연구자가 초점을 둔 것은 한국 가정 상황에 적합한지와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지에 대한 것이다. 예를 들면 “We express our opinions about current events, even when they differ.” 문항의 경우, 한국 초등학생들의 경우 가족들과 시사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본 문항에서의 핵심내용인 자유로운 의사표현에 대한 내용을 살려 “우리 가족은 서로 의견이 다르더라도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한다.”로 번역하였다. “Individual accomplishments are noticed.” 문항의 경우, 초등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 부모님은 내가 어떠한 일을 성취했을 때 이를 인정하고 격려하신다.”로 번역하였다.

2) 258명을 대상으로 한 예비검사의 분석결과 두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다. 첫째, 이분화 동의·부동의 척도에서 리커트 4점 척도로 수정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대부분의 문항 응답 평균치가 너무 높게 나타났다(전체평균 = .72). 이는 자신의 부모와 가족환경에 대한 문항에서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질문방식에 응답하게 했을 때 아동들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아니오' 보다 '예' 라고 응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연구자는 이분화 척도보다는 정도를 체크할 수 있는 리커트 척도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SCQ의 근간이 되는 검사인 CFQ는 중립적인 범주를 포함시키지 않은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기에 본 연구에서도 SCQ를 4점 척도(매우 그렇다 4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구성)로 재수정하였다. 둘째, 부정 문항을 모두 긍정 문항으로 수정하였다¹⁾.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부정 문항들은 내용과 상관없이 하나의 독립된 요인으로 묶이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의 가정환경의 부정적 문항에 대해 양자택일을 요구한 질문방식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으며, 본래 부정 문항 자체가 갖는 통계학적 문제(김아영, 김세영, 2003; Pillotte, 1991)일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부정 문항을 모두 긍정 문항으로 수정하였다.

3) 문항을 수정한 후 498명을 대상으로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SCQ의 2요인 구조가 한국 초등학생들에게도 적용되는지를 확인하였다.

4) K-SCQ의 준거관련타당도를 살펴보고자 SCQ결과로 나뉘는 4가지 가정환경 유형과 아동의 정서적·심리적 안녕감과 학습플로우경험과의 관련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 15.0과 AMOS 7.0을 사용하였다. 연구문제 1을 검증하기 위해 기술통계,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문제 2를 검증하기 위해 기술통계와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분석

1. 문항분석 및 요인구조 검증

예비검사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분화 동의·부동의 척도와 부정 문항을 리커트 4점 척도와 긍정문항으로 수정하여 498명을 대상으로 본검사를 실시하였다. 일차적으로 문항분석을 통해 문항-총점 간 상관성이 낮거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문항을 검토하였다. 해당 문항은 12번 문항(우리 집에서는 나 혼자만의 편안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 14번 문항(우리 가족의 생활은 계획적이고 규칙적이다), 17번(우리 가족은 승부가 걸린 놀이를 즐겨한다), 29번(우리 가족은 함께 즐기는 취미나 여가활동이 있다)으로, 총 4문항을 제거하였다.

SCQ의 가족의 후원과 자극, 2요인 구조가 한국 초등학생들에게도 적용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문항분석 후 남은 28 문항을 가지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K-SCQ의 모형은 <그림 2>와 같고, 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는 <표 1>과 같다.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는 대표적인 지수(문수백, 2009)인 CFI, TLI, RMSEA, SRMR 각각 .92, .91, .051, .041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K-SCQ의 2요인 구조의 모형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가족의 후원·자극의 개념구조를 잘 측정해주는 타당한 도구임이 검증되었다.

K-SCQ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문항들 간의 내적 일관성 계수인 Cronbach α 값을 산출하였다. K-SCQ의 가족의 후원은 .90, 가족의 자극은 .86으로 나타나, 높은 내적 합치도를 보였다. 척도의 최종문항은 <부록 1>에 제시하였다.

2. 가정환경 유형에 따른 아동의 안녕감과 학습플로우경험

아동의 삶의 질과 최적발달을 이끄는 가정환경 유형은 무엇일까? 이를 경험적으로 탐색하고자 K-SCQ로 분류되는 가정환경 유형과 아동의 정서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 그리고 학습플로우경험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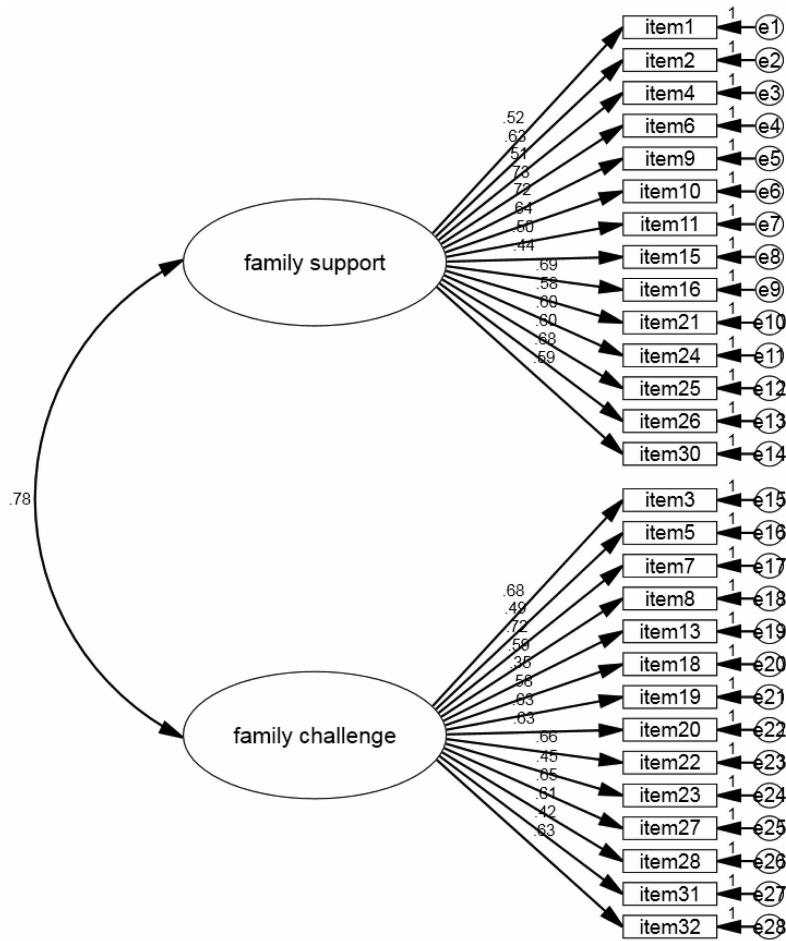
먼저 아동의 가정환경을 유형화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를

<표 1> K-SCQ의 모델 부합도 지수

모델	χ^2	NC (CMIN/DF)	CFI	TLI	SRMR	RMSEA
2요인 (28문항)	796.0 (df = 349)	2.28	.92	.91	.041	.051(.046, .055)

주: NC(Normed Chi-square), TLI(Tucker & 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SRMR(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1) Pillotte(1991)에 따르면, 암묵적 반의어(의미적으로 반대의 의미를 지니는 것)로 구성된 부정문항들은 원래 의도했던 것과 다른 새로운 요인을 형성한다. 따라서 반대의 문장을 구성하고자 할 때는 암묵적 반의어보다는 명시적 반의어(「~하지 않는다」와 같은 부정어미를 붙여 명백하게 반대 의미를 갖도록 하는 것)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고, 본 연구에서는 되도록 명시적 반의어를 사용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본래의 부정문항과 수정된 긍정문항 간의 뉘앙스의 차이는 존재할 수 있다는 제한점을 갖는다.



〈그림 2〉 K-SCQ의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28문항)

실시한 결과, 가족의 후원 점수(총합)는 평균 43.5, 중앙값 44, 표준편차 8.1, 가족의 자극 점수는 평균 45.3, 중앙값 45, 표준편차 7.2였으며, 두 요인 간 상관관계($r = .78$)가 높았다. 중앙값을 기준으로 후원의 높고 낮음과 자극의 높고 낮음으로 구분하여 네 가지 가정환경으로 유형화하였다. 그 결과, 자신의 가족이 큰 후원과 동시에 큰 도전자극을 준다고 인식한 아동(고후원/고자극 가정)이 39.1%(195명), 가정으로부터 높은 후원을 받되 자극은 적게 받는다고 인식한 아동(고후원/저자극 가정)이 13%(65명), 그리고 반대로 가정으로부터 높은 자극은 받지만 후원을 적게 받는다고 인식한 아동(저후원/고자극 가정)은 9.1%(39명)이었다. 마지막으로 자기 가정이

제공하는 후원과 자극 모두 낮다고 인식한 아동(저후원/저자극 가정)은 38.8%(193명)로 나타났다.

아동이 지각한 가정유형에 따라 아동의 안녕감과 학습플로워경험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3〉), 가정유형에 따라 정서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 플로워 경험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각각 $F(3, 497) = 52.99, p < .001$; $F(3, 497) = 56.16, p < .001$; $F(3, 497) = 23.43, p < .001$). 보다 구체적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Scheffé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정서적 안녕감의 경우 고후원/고자극 가정($M = 3.08$)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냈으며, 반면 저후원/저자극 가정($M = 2.22$)이 가장 낮았고, 고후원/저자극 가정($M = 2.60$)과 저후원/고자극 가정($M = 2.71$)은 두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심리적 안녕감의 경우, 고후원/고자극 가정($M = 3.06$)이 평균점수가 가장 높으나 저후원/고자극 가정($M = 2.84$)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고후원/저자극 가정($M = 2.56$)과 저후원/저자극 가정($M = 2.38$) 모두 낮은

〈표 2〉 K-SCQ의 요인별 신뢰도

요인	문항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가족의 후원	14	.90
가족의 자극	14	.86
전체 문항	28	.93

〈표 3〉 가정환경 유형에 따른 아동의 안녕감과 학습플로우경험 차이검증

가족유형	관련변인	정서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			학습플로우경험		
		M	SD	F	M	SD	F	M	SD	F
고후원/고자극 (N = 195)		3.08a	.67	52.99***	3.06a	3.02	56.16***	4.98a	.67	23.43***
고후원/저자극 (N = 65)		2.60b	.58		2.56b	2.20		4.57bc	.55	
저후원/고자극 (N = 39)		2.71b	.75		2.84a	2.73		4.72b	.75	
저후원/저자극 (N = 193)		2.22c	.56		2.38b	3.11		4.31c	.83	

주. 같은 아래첨자가 나타내는 평균은 Scheffé 검증결과 $p < .05$ 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의미함.

*** $p < .001$

심리적 안녕감을 보였으며, 두 집단 간 역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학습플로우경험의 경우, 고후원/고자극 가정($M = 4.98$)이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낸 반면, 저후원/저자극 가정($M = 4.31$)이 역시 가장 낮았다. 고후원/저자극 가정($M = 4.57$)과 저후원/저자극 가정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결과를 정리해보면, 고후원/고자극 가정의 아동들이 다른 유형의 아동들에 비해 정서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 플로우 경험 평균치가 가장 높았으며, 심리적 안녕감을 제외하고는 그 차이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반면, 저후원/저자극 가정의 경우, 아동들의 정서적·심리적 안녕감과 플로우 경험 모두 가장 낮았으며 그 차이 역시 심리적 안녕감을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IV. 논의 및 결론

한국판 가족 후원·자극 척도(K-SCQ)에 대한 타당화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SCQ의 2요인 구조가 한국에서도 적용 가능한지를 탐색한 후, 자극과 후원 두 요인에 따른 네 가지 가정유형이 아동의 안녕감과 플로우 경험에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라 진행된 연구결과에 대한 요약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K-SCQ의 타당화 과정 중, 예비검사(1차 자료)에서 두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을 하였다. 첫 번째로 예비조사 결과 대부분의 문항 응답 평균치가 지나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자신의 부모와 가족환경에 대한 문항에서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질문방식에서 비롯된 문제라 보고, 이분화척도보다는 정도를 체크할 수 있는 리커트 척도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분화 동의·부동의 척도에서 4점 리커트 척도로 수정하였다. 두 번째 문제는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부정 문항들은 내용과 상관없이 하나의 독립된 요인으로 묶이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

는 Rathunde의 SCQ 타당화 연구 결과(Csikszentmihalyi & Schneider, 2003)와 동일하게 발생한 문제이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의 가정환경의 부정적 문항에 대해 양자택일을 요구한 질문방식에서 비롯한 것일 수도 있으며, 본래 부정 문항 자체가 갖는 통계학적 문제(김아영, 김세영, 2003; Pillotte, 1991)일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10개의 부정 문항을 모두 긍정 문항으로 수정하였다.

둘째, 수정된 문항으로 본조사(498명)를 실시하였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K-SCQ의 2요인 구조가 한국 초등학생들에게도 잘 적용됨을 밝혔다. 그리고 내적 신뢰도 분석 결과 가족의 후원 요인은 .90, 가족의 자극은 .84로 높은 내적 신뢰도를 보여 각 요인이 어느 정도 동질적인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K-SCQ는 최종적으로 28문항(가족의 후원 14문항, 가족의 자극 14문항), 리커트 4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셋째, K-SCQ에서 후원과 자극요인의 두 잠재변인 간 추정된 상관계수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r = .78$). 가정의 후원과 자극은 모두 가정의 긍정적 측면을 측정하는 것으로 본래 높은 상관관계($r = .65$)를 지닌 변인이다. 두 요인 간 상관계수가 높은 것에 대해 Csikszentmihalyi와 Schneider(2003)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비교적 상관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가정의 한 가지 차원만을 측정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가령 중학생은 고등학생에 비해 가정이 자기를 후원한다고 느끼는 비율은 높은 반면($t = 4.92, p < .001$), 자극을 준다고 느끼는 비율은 높지 않았다($t = .90, p < .05$). 이것은 청소년이 커가면서 부모의 정서적 뒷받침은 줄어드는 반면 도전에 대한 기대 수준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받아들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후원과 자극요인은 가족의 상이한 측면을 짚어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p. 331). 이와 같은 Csikszentmihalyi와 Schneider의 설명은 후원과 자극이 어느 정도는 독립된 요인임을 말해준다. 하지만 예를 든 연

구결과는 미국의 가족관계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우리나라와의 문화적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석 시 신중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상관계수가 더 높아진 이유는 두 가지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부정문항을 모두 긍정문항으로 바꿔 신뢰도를 높이는 과정²⁾에서 두 요인 간 상관이 더 높게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본래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된 검사를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 하였다. 앞서 기술한 것과 같이 자녀가 지각하는 가족의 후원과 자극이라는 요인은 발달적으로 상관계수의 차이가 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로 추정해보면 두 요인은 어린 연령일수록 더 상관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K-SCQ의 자극과 후원 두 요인에 따른 네 가지 가정유형이 아동의 정서적·심리적 안녕감과 플로우 경험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자기 가정으로부터 높은 후원과 높은 도전자극을 받는다고 인식한 아동들이 다른 아동들에 비해 높은 정서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 플로우 경험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심리적 안녕감의 경우, 고후원/고자극 가정과 저후원/고자극 가정의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심리적 안녕감은 정서적 안녕감과 달리 실존적이며 목표지향적인 삶에 초점을 두는 것이기에 가정의 후원보다는 도전 자극에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가정해 볼 수 있다. 가정의 특성과 가정이 제공하는 경험은 아이가 성장해서 어떤 유형의 사람이 되는가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가족의 통합과 분화가 조화를 이룬 가정환경, 즉 자녀들에게 후원과 자극 모두를 제공하는 역동적인 복합적 가족 체계가 아동의 최적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Csikszentmihalyi, 1990, 1993; Csikszentmihalyi et al., 1993; Csikszentmihalyi & Schneider, 2003; Rathunde & Csikszentmihalyi, 1991). 본 연구의 결과 가족의 후원과 자극을 많이 받는다고 인식한 아동들(고후원/고자극 가정)은 다른 아동들에 비해 더 높은 정서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을 지녔으며, 학업상황에서 플로우를 더 많이 경험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복합적 가정환경이 아동의 삶의 질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지지해준다고 동시에 K-SCQ 검사의 준거관련타당도가 높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최적발달을 이끄는 복합적 가정환경을 측정할 수 있는 SCQ의 한국판(K-SCQ)에 대한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어떻게 자신의 잠재성을 최대한 발휘하고, 삶에 대한 높은 안녕감을 지닌 행복한 미래인재로 아동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가가 현 교육의 핵심과제라 할 때, 이를 이

끄는 가정환경에 대한 검사의 타당화는 매우 시기적절하다. 또한 가족 복잡성(고후원/고자극)이 아동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경험적으로 재확인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이를 바탕으로 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SCQ는 외국문화에서 최적발달을 이끌었던 가정환경의 특징을 인터뷰하여 추출한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한국문화에서 아동의 최적발달을 더 정확히 예측하는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한국문화를 기반으로 한 복합적 가정환경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이 서울지역의 5, 6학년에 제한되어있어 이를 통해 한국 표준화가 완벽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들기에 추후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확대하여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가정유형과 안녕감과 플로우 경험의 관계만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추후연구에서는 아동의 최적발달과 관련된 다른 주요 변인들(예: 창의성, 자기목적적 성격, 자기효능감 등)과의 관계성을 더 넓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는 자녀가 지각하는 가족의 후원과 자극 두 요인 간의 상관이 발달적으로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따라서 추후 발달적으로 두 요인의 상관의 변화양상과 이유를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 참고문헌

- 김아영, 김세영(2003). 명시적 부정문항과 암묵적 부정문항이 심리척도의 요인구조에 미치는 영향. **교육평가연구**, 16(1), 39-52.
- 문수백(2009). **구조방정식 모델링의 이해와 적용**. 서울: 학지사.
- 박성익, 김연경(2006). 온라인 학습에서 학습몰입요인, 몰입수준, 학업성취간의 관련성 탐구. **열린교육연구**, 14(1), 93-115.
- 석임복(2008). 학습 몰입의 성격 분석 연구: 학습동기, 학업성취도 및 Csikszentmihalyi의 몰입 모델 중심으로. **교육공학연구**, 24(1), 187-212.
- 이정미(2006). 아동이 지각한 부모 간의 갈등, 어머니의 양육행동, 사회적 지지 및 안녕감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화선(2009). 학습플로우경험의 증진방안연구: 관련 변인

2) SCQ의 내적신뢰도(Cronbach's α)는 가족의 후원과 자극 각각 .81, .74였다(Csikszentmihalyi & Schneider, 2003). 본 연구에서 타당화된 K-SCQ의 경우, 가족의 후원과 자극의 신뢰도는 .90, .86로, 신뢰도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 간의 구조적 관계분석과 플로우 채널 탐색을 기반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Baumrind, D.(1987).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adolescent risk taking behavior in contemporary America. In C. E. Irwin (Ed.), *Adolescent social behavior and health*. San Francisco: Jossey-Bass.
- Baumrind, D.(1989). Rearing competent children. In W. Damon (Ed.), *Child development today and tomorrow*. San Francisco: Jossey-Bass.
- Compton, W. C.(2005). *An introduction to positive psychology*. Belmont, CA: Thomson Wadsworth.
- Cooper, C. R., Grotevant, H. D., & Condon, S. M. (1983). Individuality and connectedness in the family as a context for adolescent identity formation and role-taking skill. In Cooper, C. R., & Grotevant, H. D. (Eds.), *Adolescent development in the family*. San Francisco: Jossey-Bass.
- Csikszentmihalyi, M.(1990). *Flow: The psychology of optimal experience*. New York: Harper & Row.
- Csikszentmihalyi, M.(1993). *The evolving self*. New York: Harper Collins.
- Csikszentmihalyi, M.(1996). *Creativity: Flow and the psychology of discovery and invention*. New York: Harper Collins.
- Csikszentmihalyi, M., & Csikszentmihalyi, I. (Eds.). (1988). *Optimal experience: Psychological studies of flow in consciousness*.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sikszentmihalyi, M., & Larson, R.(1984). *Being adolescent: Conflict and growth in teenage years*. New York: Basic Books.
- Csikszentmihalyi, M., & Rathunde, K., Whalen, S. (1993). *Talented teenagers*.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sikszentmihalyi, M., & Schneider, B.(2003). *Becoming adult: How teenagers prepare for the world of work*. New York: Basic Books. 어른이 된다는 것은. 이희재(역). 서울: 해냄. (2000년 원저발간).
- Diener, E., Lucas, R. E., & Osishi, S.(2002). Subjective well-being. In C. R. Snyder & S. J. Lopez (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pp. 63-73).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Gute, G., Gute, D. S., Nakamura, J., & Csikszentmihalyi, M.(2008). The early lives of highly creative persons: The influence of the complex family. *Creativity Research Journal*, 20(4), 343-357.
- Heine, C. A.(1997). *Task enjoyment and mathematical achievement*. University of Chicago, Chicago.
- Keyes, C. L. M.(2005). The subjective well-being of America's youth: Toward a comprehensive assessment. *Adolescent and Family Health*, 4, 3-11.
- Keyes, C. L. M., Shmotkin, D., & Ryff, C. D.(2002). Optimizing well-being: The empirical encounter of two tradi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6), 1007-1022.
- Lucas, R. E., Diener, E., & Suh, E.(1996). Discriminant validity of well-being measur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616-628.
- Nakamura, J.(1988). Optimal experience and the uses of talent. In M. Csikszentmihalyi & I. Csikszentmihalyi (Eds.), *Optimal experience: Psychological studies of flow in consciousness* (pp. 319-326).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akamura, J., & Csikszentmihalyi, M.(2002). The concept of flow, In Snyder, C. R., & Lopez, S. J. (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pp. 89-105).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Pillotte, W. J.(1991). *The impact of mixed item stems on the responses of high school students to a computer anxiety scale*. Doctori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onnecticut.
- Rathunde, K.(1988). Optimal experience and the family context. In M. Csikszentmihalyi & I. Csikszentmihalyi (Eds.), *Optimal experience: Psychological studies of flow in consciousness* (pp. 342-363),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athunde, K.(1989). The context of optimal experience: An exploratory model of the family. *New Ideas in Psychology*, 7, 91-97.
- Rathunde, K.(1996). Family context and talented adolescents' optimal experience in school-related activitie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6, 605-628.
- Rathunde, K.(2001). Family context and the development of undivided interest: A longitudinal study of family support and challenge and adolescents'

quality of experience. *Applied Developmental Science*, 5(3), 158-171.

Rathunde, K., & Csikszentmihalyi, M.(1991). Adolescent happiness and family interaction. In K. Pillemer & K. McCartney (Eds.), *Parent-child relations throughout life* (pp. 143-162).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Rathunde, K., & Csikszentmihalyi, M.(2008). The developing person: An experiential perspective. In W. Damon & R. M. Lerner (Series Eds.) & R. M Lerner (Vol.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Theoretical models of human development* (6th ed.,

Vol. 1, pp. 465-515). New York: Wiley.

Ryff, C. D.(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1069-1081.

Ryff, C. D., & Keyes, C. L. M.(1995).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4), 719-727.

접 수 일 : 2011년 3월 30일
 심사시작일 : 2011년 4월 6일
 게재확정일 : 2011년 6월 20일

〈부록 1〉 한국판 가족 후원·자극 척도(K-SCQ)의 최종문항

가족의 후원(support): 14문항

1. 우리 가족은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가 울적하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2. 우리 가족은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준다.
4. 우리 부모님은 눈치 보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신다.
6. 우리 가족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를 사랑하고 이해해 줄 것이다.
9. 우리 가족은 서로 언제든지 도울 수 있는 마음자세가 되어 있다.
10. 우리 가족은 서로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애쓴다.
11. 우리 가족에게는 특별한 추억이 많다.
15. 우리 가족은 서로 말다툼을 하지 않는다.
16. 우리 가족은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다.
21. 우리 가족은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각별한 관심을 갖고 도와준다.
24. 우리 가족은 즐거운 분위기에서 함께 식사를 한다.
25. 우리 가족은 내 생일이나 휴일에는 특별히 배려해준다.
26. 우리 가족은 나에게 항상 관심을 가져준다.
30. 우리 가족은 계획이나 일정이 어긋나면 서로 한 발짝씩 양보한다.

가족의 자극(challenge): 14문항

3. 우리 가족은 각자 맡은 일을 잘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5. 나는 자랑스러운 아들딸이 되려고 노력한다.
7. 우리 부모님은 내가 항상 최선을 다한다고 믿으신다.
8. 우리 가족들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
13. 우리 부모님은 학교수업외의 다양한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신다.
18. 우리 가족은 서로 의견이 다르더라도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한다.
19. 우리 부모님은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꼭 각자의 의견을 물으신다.
20. 우리 부모님은 자신감과 독립심을 갖도록 격려하신다.
22. 우리 부모님은 내가 어떠한 일을 성취했을 때 이를 인정하고 격려하신다.
23. 우리 부모님은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나 스스로 내리도록 하신다.
27. 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인정받는다.
28. 우리 부모님은 내가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할 것이라고 믿으신다.
31. 우리집에서 나는 혼자 집중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나만의 공간(방)을 가지고 있다.
32. 나는 가족들이 나에게 대해 생각(평가)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